

보도해명자료

('19. 3. 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전·한수원·발전사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정책과 전혀 무관함 (매일경제 3.1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'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('탈원전')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
- ◇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,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음
- ◇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,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검토 중임
- ◇ 3월 18일 매일경제 <탈원전 직격탄, 한수원·발전사 줄줄이 적자 수령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순이익 규모는 '16년 7조 1,480억원에서 '18년 △1조 1,508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만에 순이익 규모 8조 2,988억원 하락
- '16년 순이익만 2조 4,721억원에 달했던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된 데다, 원전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크게 악화되어 지난해 1,020억원 적자를 기록
- 탈원전 직격탄으로 발전5사 실적 급감

-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
 -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의 충분한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
-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,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~35%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예정임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'18년 한전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,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, 에너지전환('탈원전')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
 - '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%, LNG 16.2%, 유연탄 21%가 인상되면서 연료비가 3.6조원, 구입전력비가 4.0조원 증가
 - * 연료가격('17→'18): (유연탄) 78.4→95.0\$/t, (LNG) 66.1→76.8만원/t, (유류)53.2→69.7\$/B
 - 또한, '16.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,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
 - 발전 5개 자회사의 실적 감소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임
- 한수원 실적 하락은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임

| 구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원전 정비일수 | 1,769일 | 2,565일 | 2,917일 |
| (원전이용률) | (79.7%) | (71.2%) | (65.9%) |
| 한수원 매출액 | 11조 2,771억원 | 9조 5,109억원 | 8조 9,552억원 |

-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('24년까지는 원전 증가)이지, **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,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**

* 원전의 설비 규모 : ('17) 22.5GW, 24기 → ('24) 27.2GW, 26기 → ('30) 20.4 GW, 18기

- '18년 원전이용률과 원전 비중의 감소는 격납건물 첩판부식(9기), 콘크리트 공극(13기) 등 **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** 지난 정부시기인 **'16.6월부터** 시작된 **정비일수 증가**가 원인임

- **'16.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첩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** (격납건물 첩판 19기, 콘크리트 25기) 확대점검 결과, **9기에서 격납건물 첩판부식,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**

* 첩판부식(9기) : 고리3·4, 한빛 1·2·4, 한울 1·2·3·4

* 콘크리트 결함(13기) : 한빛1~6, 한울2·3·5, 월성1·2·3, 신고리3

- **격납건물 첩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,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**

* 격납건물 첩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 → 부식 또는 공극 등이 있을 경우, 문제발생시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위험

- 이에 따라, 한수원에 따르면, **'18년 원전이용률은 상반기 58.5%에서 하반기 73.0%로 개선되었고, '19년에는 예정된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77.4%로 상승할 전망**

- **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, 정부 재정 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음**

- 현재 논의 중인 전기요금 개편은 국민 총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

- 한편 **자원개발 공기업**의 경우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등에 따라 자산 손상 등 손실이 일부 발생했으나 **영업실적은 개선 추세**

- 특히 가스공사는 '18년 당기순이익이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, 석유공사도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**영업이익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**

* 가스공사 당기순이익(억원) : ('16) △6,125 → ('17) △11,917 → ('18) 5,267

* 석유공사 영업이익(억원) : ('16) △2,323 → ('17) 1,759 → ('18) 5,434

- 아울러,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**현재 수립중**으로 4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**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**

※ 문의 : 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 / 김은성 사무관(044-203-5261)

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 / 홍충완 사무관(044-302-5319)

자원안보정책과 오승철 과장 / 박병기 서기관(044-203-5250)

에너지혁신정책과 박재영 과장 / 정성훈 사무관(044-203-5130)